

무안군, SNS 활용 영농정보 적기 제공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불편 해소 나서 벼·양파·고구마 등 5개 과정 '호응'

무안군은 각종 영농정보를 SNS로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농업 정책과 기술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각종 영농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나 동영상으로 제작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전문가 강의를 지역 주요 작물인 벼와 양파, 고구마, 한우, 콩 등 5개 과정으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무안

군농업기술센터 채널에 공유하며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벼농사 이야기' 영상을 제작해 품종 안내와 시기별 영농정보를 전파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알찬 내용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적기에 영농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정보가 필요한 경우 SNS 검색창에서 '무안군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하면 각종 농업 정책과 기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역점사업 국비 확보 총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역점사업 재정 지원 특교세 건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특별교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전 해철 장관을 만나 역점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 재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김 시장은 지원을 요청한 역점사업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10억원)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5억) ▲해변 맛길 30리 조성(10억원) ▲재난재해 안전전광판 설치사업(4억원)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50억원) 등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시는 지속적인 국고 확보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김정환기자

영암군, '어르신 코로나 불안 제로' 경로당 방역·소독 실시

경로당 운영 재개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인 경로당 운영 재개를 앞두고

관내 449개소 마을 경로당의 내·외부 청소 및 일제방역 소독, 에어컨 청소·소독을 실시한다.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방역소독은 경로당 내부 생활시설과 주방, 화장실, 휴게실 등 부속시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여름철에 접어들어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 해충을 박멸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한 삶을 위해 실시되며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손잡이, 집기 등에 집중 방역 소독과 살균 소독을 실시하며 그동안 휴관으로 경로당 내 외부 곳곳에 쌓인 먼지 제거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2년 단위로 각 경로당의 에어컨을 청소·소독을 실시하며 올해는 영암읍 외 4개 읍·면 경로당 전체 에어컨을 대상

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했던 경로당 운영 재개를 앞두고 경로당 내·외부 청소 및 일제방역 소독을 통해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경로당 운영 재개 이후에도 방역수칙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편,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경로당 내 사적모임 허용 및 식사가능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 중이다.



영암=최대호기자

함평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함평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영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전국 우수지자체 23개 시군구를 선정·발표했다.

함평군은 집중 발굴기간 동안 416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 및 공적급여,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했

다. 이는 전년대비 268명(181%)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9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7명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10명 등 인적안정망을 적극 활용하고, 취약계층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전남도 자체사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구성·운영 등에 나선 결과다. 또 민간지원 발굴·연계 106건, '희망2021 나눔캠페인' 5억여 원의 성금 모금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영광군, 돌발해충 산림청과 공동방제

영광군은 최근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로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의 돌발해충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방제기간을 6월 1일까지로 정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5월 25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3월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실시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결과, 관내 2개 지역 농가 감나무 과수원에서 발생했다.

군은 예방과 방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돌발해충 발생지역 감나무 과수원을 대상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

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해충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사과, 매실, 감나무등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 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가 피해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 농가소득 증대·생태계 보전 '일석이조'

신안군은 다양한 섬의 이야기와 특색이 담긴 꽃을 연중 감상할 수 있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밀원(蜜源)이 조성되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과 더불어 2019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300여 명의 신규 양봉농가를 육성하였다.

최근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밀원 감소로 양봉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상황에서 이번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은 기존 아까시나무에 의존하고 있는 밀원의 한계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꿀 생산으로 꽃도 보고 꿀도 따는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꿀벌은 꽃가루를 매개하여 농산물 생산과 건전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밀원 확대와 농가 교육을 통해 꿀벌산업 육성에 힘써 것"이라고 밝혔다.